

# “주인공 마이듬처럼 당당해지고 싶어요”

## KBS 2TV ‘마녀의 법정’ 종영

### 정려원, 검사 카리스마 연기 호평

“저 이듬이와 좀 닮아진 것 같나요? (웃음)”  
최근 월화극 1위로 퇴장한 KBS 2TV ‘마녀의 법정’에서 주인공 마이듬 검사를 연기한 배우 정려원 <사진>을 만났다. ‘마녀의 법정’은 시청률 10%를 넘기가 힘든 드라마 환경에서 시원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호평받았다.

정려원은 작품 흥행에 대해 “저희도 초반에는 한 7%를 목표로 잡았다. 1등은 생각도 못 했는데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다”며 “배우들이 대본을 볼 때 재미있었던 것처럼 시청자도 그렇게 봐주셔서 신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작가님이 오랜 시간 공들여서 검사들과 인터뷰하고 사건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대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어 저희도 팀워크가 좋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이듬은 기존 드라마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여성 캐릭터였다. 정려원 역시 드라마 방송 도중 한 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마이듬은 내가 닮고 싶은 여자”라고 했을 정도로 역할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남녀 성격이 기존과 바뀌었기에 더 재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남자들이 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여자는 조력자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없던 여자 이듬이를 제가 잘해내면 정말 멋있겠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이듬이와 좀 닮아진 것 같아요. 저도 속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듬이처럼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아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 할 뿐... (웃음)”

그는 또 “시대도 변하고 여자들이 더 목소리를 낼 곳이 많아지는데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찰나에 이듬이가 후광을 달고 나타났다”고 웃으며 “반가우면서도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초반 다소 우악스러워 보이는 이듬 캐릭터를 보여 주는 게 어렵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내성적인 제 성격과 다른 면이 많이 많이 들어갔다. 모험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정려원은 ‘여름’으로 불린 윤현민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현민이는 최고다. 정말 관참은 배우고, 마음도 예쁘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같다”고 말했다.

로맨스가 상대적으로 적어 어렵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초반에 작가님께서 거의 없애 버려줬던 말씀하셔서 아예 없애 줄 알았다. 그래서 오히려 관계



에 진전이 있었을 때 재밌게 촬영했다”며 “한 6부까지 어두웠던 극을 밝게 만들어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영화 ‘B형 남자친구’(2005), ‘두 얼굴의 여친’(2007), ‘김씨 표류기’(2009), ‘작과의 동침’(2011), ‘봄중’(2011), ‘내버엔딩 스토리’(2012)와 드라마 ‘안녕, 프란체스카’(2005), ‘내 이름은 김삼순’(2005), ‘넌 어느 별에서 왔니’(2006), ‘자명고’(2009), ‘셀러리맨 초한지’(2012), ‘드라마의 제왕’(2012~2013), ‘메디컬 탐탐’(2013), ‘풍선껌’(2015)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정려원은 “이번에 제 연기에 대한 칭찬이 가장 많았기에 매우 행복했다”며 “정말 심혈을 다해 에너지를 기울이면 그게 화면으로도 보이는구나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재발견”이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다시 보게 됐다는 이야기니까 전 기뻐요. 그리고 이듬이를 통해 알

게 됐는데, 대중은 제가 얌전하고 착한 역할보다 재

있고, 센 캐릭터를 했을 때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정려원은 ‘마녀의 법정’을 통해 올해 ‘KBS 연기대상’에서도 비종영 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수상을 기대하느냐는 물음에 “후보에 올랐다는 기사를 보고 기분이 정말 좋았다”며 “그저 저는 뜻깊은 작품을 즐겁게 했는데, 거기에 상까지 받는다던 그야말로 보너스고 꿈같은 일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제가 2002년에 KBS 아침극으로 데뷔하기는 했지만 KBS 미니시리즈는 처음이라 KBS 시상식에 가는 것도 처음이다. 설렌다”고 덧붙였다.

정려원은 “작품마다 그 작품이 제일 힘들었기에 오히려 슬럼프는 없었다”며 “항상 틀어 간직하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명수·정준하 ‘코미디빅리그’ 도전

## “‘하와수’ 콤비 선보일 것”

MBC TV 간판 예능 ‘무한도전’의 박명수와 정준하가 tvN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이하 ‘코빅’) 무대에 도전했다. <사진>

‘무한도전’ 측은 13일 “박명수와 정준하가 ‘코미디 하와수’를 결성해 우어곡절 끝에 ‘코빅’ 무대에 섰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그동안 두 사람의 일정과 관리를 ‘코빅’ 룰에 따라 현장 관객의 투표가 진행됐다”며 “현장 관객 50% 이상의 선택을 받아야 두 사람의 코너가 ‘코빅’에서 방송된다. ‘통편집’될 경우 못다 한 이야기와 그 코너를 ‘무한도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소개했다.

‘무한도전’의 매향인 ‘하와수’는 ‘무한도



전’ 내 대표 콤비 캐릭터로, 이른바 ‘불장난 댄스’로 불리는 과감한 커플 댄스로 2011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의 도전 과정과 결과는 오는 16일 오후 6시 20분 방송하는 ‘무한도전’을 통해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시트콤 만큼 웃겨” KBS 2TV ‘저글러스’

## 4회 만에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시트콤 만큼 웃기다는 입소문을 타고 근소한 차이로 1위 자리에 올랐다.

1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방송한 KBS 2TV 월화극 ‘저글러스’(사진) 시청률은 8.0%를 기록했다. 동시간대 방송한 SBS TV ‘의문의 일승’은 6.6%~7.7%, MBC TV ‘투깝스’는 6.0%~7.0%로 집계돼 혼전 양상이지만 ‘저글러스’가 선두에 섰다.

전날 방송에서는 개찰기미만 하던 치원(최다니엘 분)이 윤이(백진희)를 통해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깨달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의문의 일승’, ‘투깝스’보다 한 주 늦은 지난 4일 시작한 ‘저글러스’는 당시 5.6%의 시청률을 보이며 지상파 월화극 꼴찌로 출발했다.

그러나 백진희의 코믹 연기가 온라인 등에서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웬만한 시트콤보다 웃긴다”는 반응을 얻어 4회 만에 치고 올라오는 데 성공했다.



특히 윤이의 직장 상사인 치원이 알고 보니 윤이 집의 세입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두 사람이 점점 사적으로 얽히면서 향후 전개에 더 기대를 모은다.

이러한 가운데 저글러스를 하듯 바쁘면서도 보스의 심기를 맞춰야 하는 비서들의 애환을 실감 나면서도 재치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도 따른다.

한편,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6’은 시청률 2.5%(이하 유료플랫폼), JTBC ‘그냥 사랑하는 사이’는 1.924%, TV조선 시트콤 ‘너의 등짝에 스페셜’은 1.520%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 20 억류 (재)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2TV 생생정보	00 MBC 뉴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흑기사(재)	50 로봇이 아니야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UHD 한식의 마음	55 내 남자의 비밀(재)		00 애니갤러리 30 교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산		00 MBC 뉴스 10 법상 차리는 남자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매커드	50 생생정보 스페셜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팔도밤성 스페셜	5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5 똑? 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0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20 TV 유치원 50 KBS 재난방송센터	05 뽀글이 사랑해 3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55 PD수첩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누가 잘하나		00 겨울방학 특선 인형, 전우치 30 겨울방학 특선 두들스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5 UHD 한식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놀 15 타닝메카드 R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MBC 뉴스 10 허하랜드 스페셜 30 전생애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나눔의 행복, 기부 55 UHD 한식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0 정글의 법칙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곱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 24 55 흑기사(재)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0 로봇이 아니야 (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글로벌 다큐멘터리-세계의 산맥			
10	35 KBS 뉴스라인	00 흑기사		00 이판사판
11	00 청소년드라마 언더테 55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긋불긋	10 해피투게더 스페셜	10 MBC 스페셜	10 전혹하고 아름다운 연애도시 1~2부
12	45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앙코르 특선 다큐멘터리 우리 엄마 손에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05:30 통일의 길 <오늘도 달린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남자만두와 비빔냉면>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07:00 레인보우 루비	12:10 장수의 비밀 <96세 할아버지의 건강백서>
07:30 똑딱맨	12:40 지식채널e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5 명의(재)
08:00 덩동덩 유치원 1~2	13:4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자오죽, 여인의 길>
08:30 공룡탐험대 고고디노(재)	14:30 레인보우 루비
08:45 수확이 아홉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09:30 롤링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20:50 세계테마기행 <호주, 그 멋진 날에 > <붉은 황무지의 땅 브롬>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1:30 한국기행 <사투리 기행 > <살아불림가, 우털맹키로>
16:30 수확이 아홉(재)	21:50 과학 다큐 버마드 <인공지능 - 슈퍼인텔리전스>
16:45 덩동덩 유치원 1~2(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중국 가서 살고 싶은 며느리, 말리는 시어머니, 입 닫은 아들>
17:15 홍강한 소방차 레이	23:35 불랑시니여클럽
17:30 똑딱맨	24:05 지식채널e
17:45 뽀롱뽀롱 뽀로로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19:00 사이언스타 Q <우서온 놀이기구 잘 타는 법>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온 개는 없다	
20:40 다큐 오늘 <매일 맛을 알아?>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4일(음 10월 27일 乙亥)

<p><b>子</b> 48년생 임의 대로 뇌두는 것은 부지절함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60년생 현저한 행운도 없지만 대고 없이 무난하다. 72년생 도중에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 84년생 약간만 신경 쓰면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2, 08</p>	<p><b>午</b> 42년생 마음을 비우자. 54년생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66년생 알면서도 매번 당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 78년생 작품의 성장을 촉진하는 햇빛이 내리쬐고 있다. 90년생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5, 88</p>
<p><b>丑</b> 49년생 중요한 사절이나 흐름을 파악하고 체계를 잡아라한다. 61년생 하나의 이론 아래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여들 것이다. 73년생 공존공영의 기반이 성립되는 도광이다. 85년생 상태가 계속된다면 총출동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65, 61</p>	<p><b>未</b> 43년생 불만해질 수 있다. 55년생 초심을 잃지 않은 원칙적 실천이 길사호 이끈다. 67년생 사소한 원인으로 경시하지 말고 예의 주시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79년생 팔 십는데 팔 나고 공심은 데 콩 나는 뱀이나라. 91년생 흥결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8, 28</p>
<p><b>寅</b> 50년생 전례에 비추어 처리하는 것이 무난하겠다. 62년생 미리 준비 해두어야 목전에서 당황하지 않으리라. 74년생 일상에 충실하다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86년생 변화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중차대함을 간과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0, 67</p>	<p><b>申</b> 44년생 뜻밖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운수다. 56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68년생 특수한 것은 특별한 요령에 따르는 것이 제일 적합하고 능률적이다. 80년생 집착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76, 22</p>
<p><b>卯</b> 51년생 분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털고 일어서야 한다. 63년생 실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75년생 안정적인 구도로 가는 것이 지혜롭다. 87년생 일의 순서보다 양에 중점을 두어 할 때 되었다. 행운의 숫자 : 48, 90</p>	<p><b>酉</b> 45년생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57년생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69년생 거두어들이는 결과물의 수량이 늘어나는 풍요로움이 보인다. 81년생 관련된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행운의 숫자 : 07, 71</p>
<p><b>辰</b> 52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칠 것이다. 64년생 생 권유 받을 수도 있으나 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76년생 수량이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88년생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이끌리다보면 후회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8, 64</p>	<p><b>戌</b> 46년생 일취일장하리라. 58년생 명민한 조처가 취약점을 봉합하게 된다. 70년생 불안정한 국력이 정리된 후 안정권에 들어서게 될 것이나 마음 놓아도 된다. 82년생 유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지니 한 걸음이라도 진보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8, 33</p>
<p><b>巳</b> 53년생 현재의 손익에만 얽매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65년생 핵심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겠다. 77년생 이번까지 살펴보자. 89년생 상태의 숨은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행운의 숫자 : 44, 73</p>	<p><b>亥</b> 47년생 요령을 배라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라. 59년생 골라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71년생 지금 상태대로 내버려 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법을 강구해 봐야 한다. 83년생 가볍게 여기다가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행운의 숫자 : 73, 09</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